

opusdei.org

#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19-11-28

✠ 마태오의 복음. 4,18-22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

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목상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킬 때 (사랑스러운 제자인 사도 요한과 함께) 그의 형 베드로와 같은 한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과 그날을 함께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 날 오후, 안드

레아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요한 1:41-42).

안드레아는 오늘 복음의 장면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입니다. 안드레아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보다 더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가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낚는 그의 '일터'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주님, 저도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던지 그 부르심에 빨리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기다리도록 만들지 않게 하소서. 또한 저 역시도 안드레아 사도와 같이 그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기 해주소서.

안드레아 사도의 삶의 마지막에 X자 모양의 십자가로 못 박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X자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늙은 눈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님의 그 몸으로 아름다워진 십자가. 오랫동안 나는 너를 갈망해왔노라. 나는 너를 열렬하게 사랑해왔노라. 끊임없이 너를 구해왔노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이 간절한 영혼에 준비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의 스승님께로 되돌아가게 해주길. 그렇게 해서 너의 도움으로 내

가 죽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길."

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제가 당신 아드님께 빨리 응답할 수 있게 해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대영 요셉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11weol-30il-seong-andeurea-sado-cugil/>  
(2026-2-8)